

## 광주 출신 AG 승마대표 김형철씨 경기중 사망

**폭우로 경기장 진흙밭  
주최측 연기요청 목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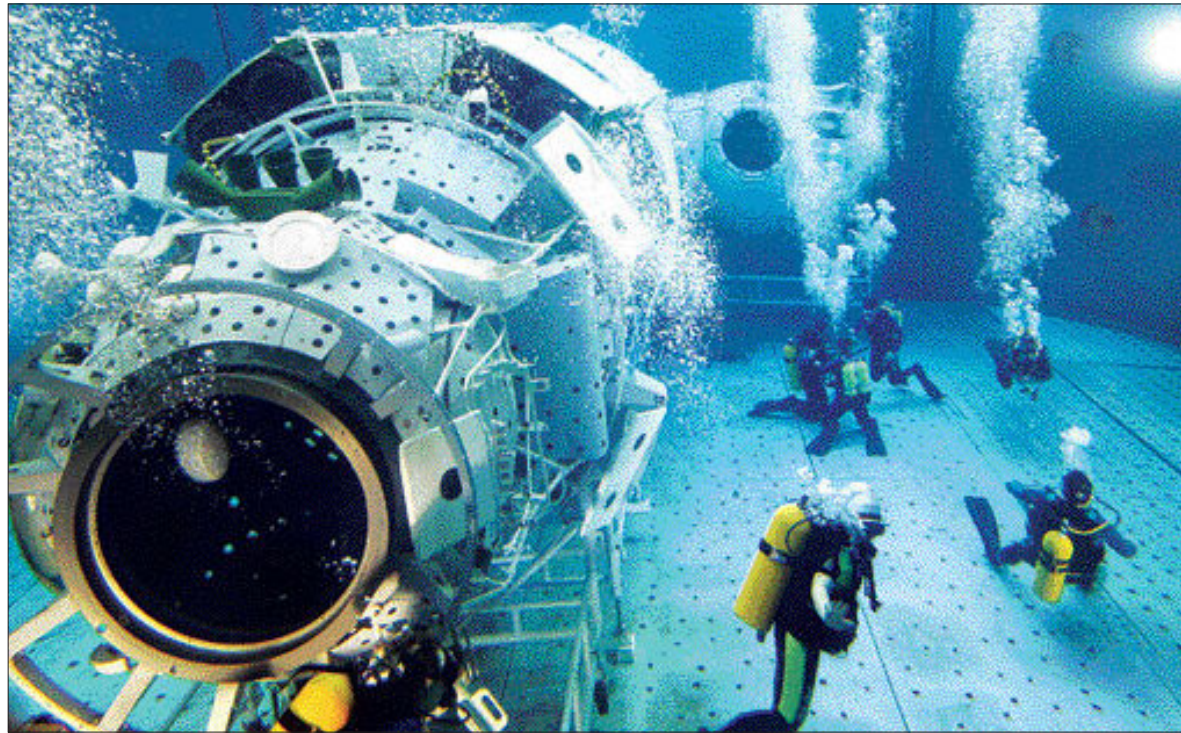


하마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전 10시50분께 사망했다.

아시아 게임 승마 종합 마술 대표팀으로 참가한 광주출신 김형철(47)이 경기 도중 말에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경기중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지 선수단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상보 22면>

8년간 광주시 대표선수이기도 했던 김형철은 이번 대회를 은퇴무대로 삼았지만 불의의 참변을 당해 광주·전남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특히 주최측은 이날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경기장이 진흙밭으로 변해 선수·임원들이 경기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회를 진행, 김선수가 안전불감증의 희생양이라는 지적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김형철은 7일(이하 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승마클럽에서 열린 2006 아시아게임 종합마술 이틀째 개인·단체 크로스컨트리 도중 말에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곧바로 선수촌 인근

2.7km코스에서 장애물 23개를 넘어야 하는 크로스컨트리는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려 주위가 질척거리는 가운데 오전 10시11분께 시작했다. 사고는 출발 2~3분 후 여덟번째 장애물을 넘다 말의 앞다리가 장애물에 걸리면서 위에 타고 있던 김형철이 거꾸로 땅바닥에 떨어졌고 같이 공중에서 거꾸러진 500kg에 달하는 말의 엉덩이가 김형철의 머리를 짓눌렀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하마드 종합병원에서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김형철의 애마 ‘벤더버그 블랙’도 뒷다리가 부러져 안락사 시킬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소원미(41)씨와 초등학교 딸 민지(11), 아들 민섭(10)이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한국 첫 우주인 임무수행 평가  
행 능력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 가가린우주센터에서 현지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우주인 후보자 8명이 6일 오후(현지시간) 대형 수조 안에서 무중력상태의 임무수행 능력 평가를 받고 있다.

## 檢, 외환銀 불법매각결론

최고 8,252억원 손실...론스타 개입 못 밝혀

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불법으로 매각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론스타측과 결탁해 고의로 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기보다 3천443억~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법원이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최종 인정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판과정이 주목된다. 대검 중수부는 7일 외환은행이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결론 내고 이강원 전 외환

은행과 하중선 변호사 등 2명을 특정법상 배임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이후인 2003년 말 외환카드를 인수할 당시 ‘허위 감사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오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로비나 주가조작 등을 둘러싼 미진한 의혹은 중수부에 특별전담팀을 별도로 편성해 계속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환뉴스>

## 은행들, 직업엔 귀천 있다

신용대출 금리 차별...의대생이 대기업 간부보다 대접받아

고객 모르게 금리인상 횡포도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직업별로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직업의 안정성’에 따른 대출 금리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생이 대기업 10년차 과장보다 싼 금리를 적용받는가 하면 대출 후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금리가 오르는 등 불합리한 점도 있어 고객들이 ‘은행들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최저 5.53%에서 최고 13.95%까지 직업과 신용도에 따라 최대 2.52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최고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사(차과

및 한의사 포함),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공무원 등의 직업군은 연 평균 5~6%대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고 있으며 개별 신용도가 낮더라도 8%대에서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의 경우 행정 및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가계자금대출’ 금리가 최저 5.53%에서 최고 7.53%로 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가장 낮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대출상품인 ‘탐 스페셜 론’의 금리도 최저 5.83%에서 최고 8.03%로 낮은 편이다. 타 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의 사와 변호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우리(5.72~7.62%), 하나(5.73~7.43%), 씨티(5.75~7.85%), 기업(5.95~7.45%), 국민(6.19~6.

79%), 신한(6.12~7.12%) 순으로 평균 5~7% 수준이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직원이나 주부 등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9~10%대로 개별 신용도에 따라 아무리 낮더라도 6~7% 금리를 적용받기 힘들고 최고 금리는 13%대 후반까지 올라간다. 중소기업 직장인과 주부 등이 주 고객인 광주은행의 ‘CSS대출’ 금리는 최저 7.73%에서 최고 13.95%다. 이밖에 신한은 8.75%~13.25%, SC제일(8.69~12.36%), 외환(7.06~10.38%) 등도 소기업 직원들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즉 광주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최고의 공무원과 최저인 중소기업 직원의 금리차이는 2.52배나 난다. 더구나 하나은행은 대기업 10년차 고참 과장보다도 1%포인트 낮은 연 5.63~7.43%로 의대 분과 3·

4학년생에게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1천만원을 빌릴 경우 대기업 과장이 의대생에 비해 이자를 1년에 10만원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직업에 따라 천차만별인 신용대출 한도와 대출기간중 오른 금리를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는 은행의 대출관리시스템에 대한 불만도 높다. 현재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액은 전문직의 경우 최소 2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인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연봉의 100% 수준이나 많아야 150%로 제한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48·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직업에 따라 금리 차별을 느끼는 것도 서러운데 지난해 받은 신용대출 금리가 1년사이 2%포인트가량 올랐는데도 은행에서 변동금리를 알려주지 않아 울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400 대 1

10명 모집에 4,000명 몰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 10여명 모집에 4천여명이 몰려 400 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 현상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최근 마감한 생산직 직원 원서 접수 결과 모집 예상 인원의 400배가 넘는 4천여명이 접수를 마쳤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채용도 아니고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따라 소수의 생산라인 직원들을 모집하는 데도 이처럼 많은 지원자가 몰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공인학원 합격률 5.6% 역사상 최후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4세대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한미FTA 협상 중단

반덤핑 이견 ‘무역구제’ 결렬...의약품·車 분과위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사흘째인 6일(현지시간) 무역구제를 둘러싼 양측 협상단의 대립으로 무역구제와 의약품, 자동차 등 총 3개 분과회의가 결렬 또는 조기 중단되는 파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최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FTA 추진을 둘러싸고도 최고기 수입 제개 문제가 계속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의 3개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과는 정상적으로 진행중

이고 미측이 한국산에 대한 물품취급수수료를 철폐하는데 동의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전날에 이어 무역구제 분과회의를 열었으나 미측이 우리가 요구한 5가지 반덤핑 관련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아 분과회의의 개시 50분 만에 우리측이 회의를 중단시켰다. 우리측은 전날 무역구제 분과회의에서 산업피해 관때때 국가별 비합산 등 5가지 반덤핑 관련 개선사항과 다자간 세이프가드의 적용 배제 등 요구를 전달하면서 거부 답변을 오늘 오전까지 알려달라고 통고했다. <연환뉴스>

힘빰히 따져봐도 **조선대학교**

NURI, BK21, JUMP, NICE

조선대학교